

7월 경상수지 흑자 전년비 10.3% ↓

87억1000만달러로 10억 달러 줄어... 상품·본원소득수지 흑자 축소, 서비스수지 적자 커져

7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87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97억1000만달러)보다 10억 달러(10.3%) 줄어든 규모다.

지난 3월 100억 달러에서 4월 33억 달러로 줄어들었던 흑자 규모는 5월 103억 달러, 6월 120억 달러로 다시 늘어났다가 3개월만에 증가폭이 다시 30% 정도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7월 흑자 규모는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던 지난 6월(120억6000만달러)에 비해서도 33억 5000만달러 줄었다. 7월 통관수출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줄고, 여행수지 등 서비스수지의 적자폭이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2016년 7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87억1000만 달러로 전년동기, 전월 대비 모두 감소했다. 다만 지난 2012년 3월 이후 53개월째 흑자를 냈다.

이로써 올해 1~7월 흑자 규모는 585억8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흑자규모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상품수지와 본원소득수지의 흑자규모가 줄어들고 서비스 수지의 적자폭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전소득수지 역시 적자를 냈다.

불황형 흑자 양상도 지속됐다.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3% 줄어든 409억9000만 달러로 집계됐고,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3.6% 감소한 333억9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수출은 정보통신기기 등이 늘어난 반면, 선박과 디스플레이 패널, 가전 제품 등이 줄었다. 수입은 원자재, 자본재 및 소비재 수입이 각각 18.4%,



‘삼성패밀리 허브입니다’ 삼성전자가 2일부터 7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IFA2016에서 ‘발상의 전환(Rethink)’을 통해 소비자 혁신을 가져오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제품과 솔루션을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IFA결과 삼성전자 모델이 ‘시티큐브 베를린’ 전시장에서 패밀리 허브를 소개하고 있다.

8.6%, 8.6% 감소했다.

이로써 상품수지의 흑자 규모는 전 달 127억1000만달러에서 108억1000만 달러로 14.9% 줄어들었다.

서비스수지는 여행수지 악화 등으로 적자규모가 전월 13억8000만 달러에서 15억3000만 달러로 늘었다. 이중 여행수지가 12억8000만달러의 적자를 내 전월(-7억4000만달러)보다 적자폭을 확대했다. 건설수지는 7억7000만 달러 흑자를 내면서 전월(7억4000만 달러)보다 흑자 규모를 소폭 늘렸다.

기타사업서비스수지의 적자 규모는 4억7000만달러로 전월 7억5000 달러보다 적자폭을 줄였다.

임금과 투자소득 등을 포함하는 본원소득수지는 배당 수입 감소 등으로 흑자규모가 전월 12억6000만 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투자소득이 2억달러 흑자를 내는데 그쳤고, 급여 및 임금에서 1억5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한편 자본 유출입을 보여주는 금융계정은 93억9000만달러 순자산 증가

를 나타냈다.

직접투자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전월 28억2000만 달러보다 줄어든 22억달러를 나타냈다. 외국인 국내투자도 전월 13억5000만달러보다 소폭 줄어든 12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증권투자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전월 39억8000만 달러보다 늘어난 46억2000만 달러 증가를 나타냈고, 외국인 국내 투자는 전월 22억2000만 달러 감소에서 45억3000만달러 증가로 전환했다. /뉴시스

대기업 대출 연체율 2.31% ‘역대 최고’

STX조선 법정관리 여파

기업 구조조정 여파로 국내은행의 대기업 대출 연체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말 기준 은행의 대기업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이 2.31%를 기록했다고 1일 발표했다. 한달 전보다는 0.14%포인트, 1년 전보다는 1.47%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7월 말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금감원이 관련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 5월 STX조선해양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2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연체가 발생해 두달 연속 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STX조선의 법정관리로 지난

6월 은행권의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1.4%포인트 뛰었다.

중소기업대출(원화) 연체율은 0.82%로 전월에 비해 0.11%포인트 증가했다. 전체 기업 대출 연체율은 1.16%로 0.12%포인트 늘었다.

금감원은 조선, 해운 등 취약 업종의 부실화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가계 대출 연체율은 0.32%로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4%로 한 달 전과 같았고, 집단대출 연체율은 0.37%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하락했다. 집단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0.19%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53%로 전체 가계 대출 연체율을 상당히 웃도는 수준이었다. /뉴시스

‘요금할인’ 이통 가입자 1000만명 넘어

할인율 20% 상향 후 증가

이동통신 3사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제)’ 누적 가입자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일 이동통신 3사의 20% 요금할인 누적 가입자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요금할인 약정만료자, 중도해지자(단말기 교체, 번호이동 등) 등을 제외하고 현재 시점에서 요금할인에 가입된 순 가입자는 884만명이다.

이 제도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가입하는 이용자에게도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미래부는 지원금을 받은 가입자와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간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고 단말기와 서비스의 분리라는 이동통신 유통구조의 개선

을 위해 지난 2014년 10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과 함께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가입자 현황을 보면 단말기를 신규로 구매할 경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한 가입자 비중이 평균 26.5% 수준이다.

단통법 시행 초기(2014년 10월~2015년 4월23일) 1.5%에 그쳤지만 지난해 4월24일 요금할인율을 12%에서 20%로 상향한 이후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중고폰·자급폰 이용자나 약정 만료자의 20% 요금할인 가입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최근에는 311만명 가량이 요금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뉴시스

“통장 300만원에 삽니다”

불법금융광고 주의보 발령... 상반기 915건 적발 통장 매매 411건·문서위조 대출 177건 등 다양

법광고가 다양화하는 추세다.

불법매매와 관련해서는 게시글을 통해 각종 통장, 현금·체크카드, 보안카드, OTP 등을 1건당 80~300만원에 산다는 광고가 적발됐다.

불법게입,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자금환전용 또는 대포통장 유통목

적의 통장매입 광고 외에도 최근에는 돈을 벌기 위해 일반 개인들도 통장판매 광고 글을 다수 게재했다.

불법대출 광고도 기승을 부렸다. ‘신용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가능’, ‘맞춤 신용대출’ 등의 광고글을 게재해 대출희망자를 현혹했다. /뉴시스

미등록 대부업체는 대출상당 카페 등에 ‘누구나 당일대출 승인’, ‘급전대출 가능’ 등 문구를 사용하며 저신용자, 대학생 등을 유인했다.

폐업된 대부업체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된 대부업체를 가칭하는 등의 불법광고 행위도 존재했다.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게임이템, 사이버머니 등을 구입하게 하고 이를 중개업자에게 되파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는 유튜브, 트위터 등 해외사이트로 번졌고, 카드값은 모바일상품권 매입을 통한 카드 매출액을 현금화하는 광고 게시물이 많았다. /뉴시스

통장을 매매하거나 개인정보를 위조해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식의 불법금융광고가 여전히 상행해 금융당국이 경계주의보를 내렸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적발된 인터넷 불법금융광고는 총 915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통장 매매가 4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작업대출(문서위조 대출) 177건, 미등록 대부업체 관련이 164건, 휴대전화 소액결제현금화(대출) 106건 순이었다.

전체 불법금융광고는 1년 전보다 30%가량 감소했지만 신용카드 현금화(카드깡)도 되레 증가하는 등 불

갤럭시노트7 공급 중단 삼성 “품질 점검 때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 공급이 지난달 31일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동통신 3사에 갤럭시노트7 공급을 그간 물량부족을 이유로 일시 중단했다 재개를 반복해왔는데 이날은 공급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오늘(31일)은 아예 갤럭시노트7 물량이 공급되지 않았다. 전날(30일)까지는 조금이나마 물량이 들어와 공급이 중단됐다고는 보기 어려운 것 같다”며 “삼성전자에 이유를 물어봤지만 대답을

받지 못했다. 고객들에게 물량을 확보하는 대로 조속히 공급하겠다고 안내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폭발사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원인조사를 위해 공급을 중단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날 오후 배포한 공식 입장자료에서 “갤럭시노트7 품질 점검을 위한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어 출하가 지연되고 있다”고만 설명했다. 품질 점검 대상이 배터리 충전 불량건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갤럭시노트7 공급 지연 사태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체육증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

